

Cyber Space에서 대학이 가야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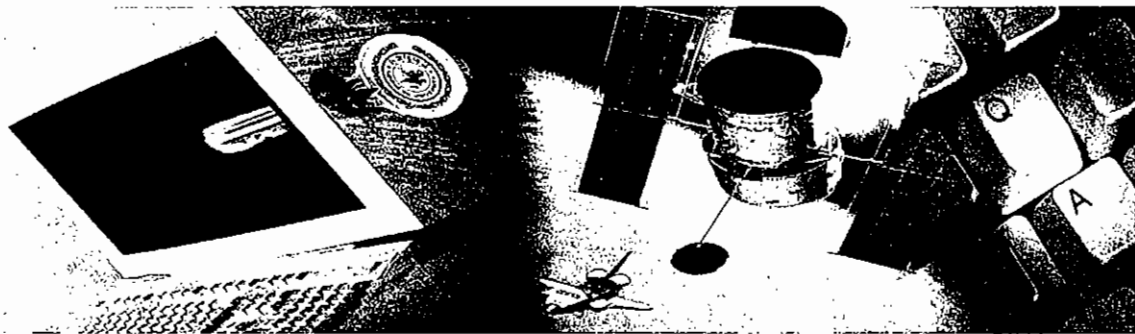
이 용 태 | 삼보컴퓨터 회장

1. 인터넷 스페이스에서 한국의 위치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남북 정상 회담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인터넷 때문이다. 실로 한국은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6월 20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 증권 거래의 56.9%가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온라인 증권 거래에 관한 한국이 단연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정보통신과 전자 상거래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한국이 그 절대적 수로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가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얼마 전 『Fortune』 잡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금년 1월 중에 3,500개의 벤처 기업이 탄생했고, 연내 50,000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매달린 서버의 수를 보면 .COM의 주소를 취득한 기업의 수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 2위이고 .KR은 .DE, .UK에 이어 세계 3위이다.

또 전체 가입자 수는 예측치를 앞질러 급성장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0만이었었는데 지금은 1,500만이 되었고 연내로 2,0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을 인구 비율로 보면 미국이 제일 앞서 가고 있고 한국과 영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독일, 불란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한국이 영국을 앞질러 미국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또 www.alexacom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100개의 사이트 중에 한국 회사가 6개나 들어있어 Site 수로 보았을 때에는 한국이 미국 다음 세계 2위라고 한다.

지금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한국이 사이버 세계에서 일본, 독일, 불란서를 앞질러 영국과 더불어 세계 2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 제 1위이고, 한국 여자 양궁이 세계 1위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지금은 사회 전체가 사이버 세계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한국이 여기에서 앞선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써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하여 너무나 둔감하여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2. 지금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규격화된 제품을 양산하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따라서 학교라는 것도 큰 운동장과 거대한 건물을 지어 놓고 학생들을 규격화하여 양산하였다. 사람은 물건과 달라서 그 자질과 개성 및 진로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수십 명의 학생들을 교육부가 정한 교과 과정에 의해 일률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이 무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이란 사회 생활을 할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잘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 목적일 것이다.

사회 생활을 잘 하려면 폭넓은 교양과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윤리성, 사교성 등이 길러져야 하고 또 사회 생활이나 직장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복합 시스템의 형태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수행 방법, 검증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덕성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는 것이 현실 사회 생활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의 전수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교육이 안고 있는 두 번째 큰 문제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외 수업에 끌려다니면서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온갖 노력이 쏟려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덕적인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 대학에서는 지식 전달 강의 이외에 인격 도야에 대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의 본질적인 교육은 인격 양성이 가장 중시되었으며 학자라는 존칭도 지식과 행동이 병행할 때에만 비로소 붙여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하여 중세 서구 교육은 전혀 사정이 달랐다. 귀족 자제들은 지식 교육에 관해서는 신분이 낮은 가정 교사에게 전수 받았으므로 교사나 예술가니 하는 사람들은 피교육자들에게 인격적인 교육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학 초기에는 학생들이 교수에게 구타까지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서구의 교육 제도가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3.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모습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의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나 계속하여 그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어 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으며, 장차 앞으로 컴퓨터가 지식 교육에 관한 한 매우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 두드러진 장점은 피교육자에게 능력에 맞게 진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식 교육은 컴퓨터가 대부분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필요 없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임이 틀림없지만 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상담자 내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체크하고 적당한 학습 프로그램을 골라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나머지 두 가지 역할, 즉 덕성을 가진 인격자 양성,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현명한 사람을 기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학습 방법으로는 집단 토론, 사례 학습, 현장 학습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대학교에서의 실

제 강의는 세계 최고의 명교수들로부터 원격 교육 방법으로 지식 전수를 받고 교수는 학생들의 상담자(consultant) 내지 지도 교사(adviser)로서 해당 학과에 대한 문제의 실습과 집단 토론 등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학생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한 진실됨을 익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사이버 세계가 되어도 대학의 이러한 기능에 대한 중요성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이용태

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학교 이학박사, 명예과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전자공과대학 명예박사, 중국 동북대학교 명예박사 등,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국대, 서강대 강사, 이화여대 전임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부소장, 한국데이터통신(주) 사장, 회장, 아세아대양주 전산산업기구(ASOCIO) 회장,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삼보컴퓨터를 설립하였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주)두루넷 회장, (주)삼보컴퓨터 회장,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사장,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국민경제자문위원,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컴퓨터산책』, 『정보사회, 정보문화』,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등이 있다.